



22일 광주무등야구장에서 열린 2007 프로야구 두산-KIA전. KIA 선발 윤석민이 원봉승을 거둔 후 포수 차일목과 악수를 하고 있다. /워직랑기자 jrv@kwangju.co.kr

윤석민 “아쉽다! 노히트 노런”



역울한(?) 3패 뒤 완봉으로 시즌 첫 승

KIA, 두산에 3-0 승…주말 2연승 질주

윤석민(21·KIA)
이을 시즌 8개 구단 투수 가운데 첫 완봉투를 기록하
며 감격적인 프로 데뷔 첫 선발승을 올렸다.

올 시즌 3경기 평균 자책점 1.96의 호투에도 불구하고 3연패를 떼안았던 윤석민은 22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9이닝동안 탈삼진 4개를 잡아내며 3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호투,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KIA는 이날 승리로 기분좋은 2연승을 질주했다.

투구수가 98개에 불과할 정도로 호투한 윤석민은 최고구속 147km의 위력적인 직구와 빼어난 제구력을 앞세워 두산 타선을 잠재웠다.

특히 이날 윤석민의 승리는 올 시즌 잘 던지고 타

선의 침묵으로 패하는 징크스를 깨뜨리는 것이어서 감격은 더욱 컸다.

2005년 프로에 데뷔한 윤석민은 그해 중간계부(3승 4패 7세이브)로, 지난해엔 마무리와 ‘허리’를 오가며 5승6패 19세이브(평균 자책점 2.28)의 성적을 올렸고, 올 시즌 ‘토종 에이스’ 김진우의 빈자리인 1선발을 꿰찼다.

윤석민은 그러나 지난 6일 잠실 LG와의 개막전에서 6.1이닝 1실점(비자책)의 빠어난 피칭에도 불구하고 0-1로 패한데 이어 지난 17일 인천 SK전에서도 7이닝 1실점(비자책점)으로 잘 던지고 또 다시 0-1로 경기가 종료되는 바람에 2패를 기록했다. 두 경기 모두 투구내용은 완벽했지만, 팀 타선의 침묵과 수비진

의 실책이 패인이 됐다.

이날 1,2,5,6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윤석민은 3회에 몸에 맞는 볼 1개와 4회에 볼넷 1개만을 내주는 완벽한 호투쇼를 펼쳤다. 7회, 8회, 9회에도 각각 1안타로 이닝을 깔끔히 미무리 했다.

윤석민만 나오면 침묵하던 KIA 타선도 상대 ‘에이스’ 리오스를 상대로 1회 김원섭의 내야안타와 장성호의 좌익수 원쪽에 떨어지는 행운의 안타, 그리고 서른의 볼넷을 끓어 1사 만루를 만든 뒤 이재주의 좌전 적시타로 선취 2점을 뽑아냈다. KIA는 3회에도 선두타자 김원섭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포문을 연 뒤 장성호의 희생 플라이로 1점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주 SK와의 3연전에서 3연패, 두산과의 홈 1차전에서 1패로 4연패의 늪에 빠졌던 KIA는 지난 21일 두산과 광주 홈경기에서 3-2로 앞선 8회 1사 만루에서 대타 조경환의 우월 2타점 2루타로 5-2로 달아난 뒤 계속된 잔스에서 이영규가 2타점 우중간 적시타로 패기를 박아 7-2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웅 ‘힘겨운 첫 승’

클리블랜드전 60이닝 5실점…9개월만에 1승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홈 경기에 선발등판해 60이닝 동안 안타 8개와 볼넷 2개로 5실점했다.

그러나 팀 타선이 활발하게 터져 탭파베이가 6-5로 이기면서 서재웅이 승리투수가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앤서니 김 공동 27위

PGA 취리히클래스 3R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클래스 3라운드에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2라운드에서 공동 64위에 머물렀던 앤서니 김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애나 TPC(파72·7천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세째날 3타를 줄여 함께 4언더파 212타로 공동 27위까지 뛰어올랐다.

앤서니 김은 이날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1개로 막아냈다. 그러나 둘째 날 공동 20위까지 상승세를 탔던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는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를 범하면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함께 공동 27위로 쳐졌다.

닉 와트너(미국)가 이날 4타를 줄여 함께 12언더파 204타로 2타차 단독 선두에 나서 생애 첫 우승을 바라봤다. 2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였던 노작 마크 캘커베키 아(미국)는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함께 9언더파 207타로 공동 3위로 내려앉았다. /최재호기자 lion@



‘마린보이’ 박태환 영어 과외 받는다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영어 과외를 받는다. 제79회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한 박태환과 함께 울산에 머물고 있는 아버지 박인호(56)씨는 22일 “대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면 영어 과외를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전지훈련을 갔을 때 박태환은 누군가 주변에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의사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는 다르다. 공동취재구역까지 통역이 따라다닐 수 없어 해외 취재진에게 경기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간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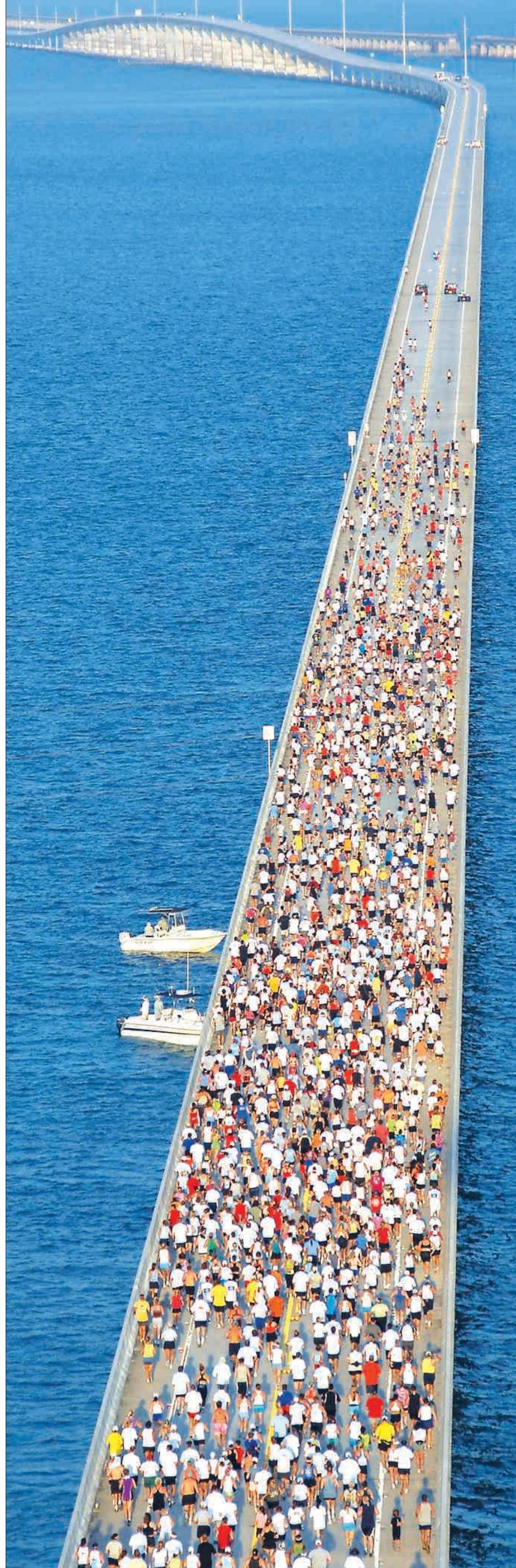
답변은 직접 영어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박태환은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경기장 공동취재구역에서 수많은 외국인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았다.

대부분은 주위에서 도와줬지만 마땅한 통역자가 없을 때는 외국 기자들의 질문에 손사래부터 쳤다.

이것이 아쉬웠던지 박태환은 대회가 끝나고 귀국해 경기고에서 마련한 환영행사에서 “국제대회에 자주 나갈 테니 외국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



바다를 달리는 기분

22일 미국 플로리다 키스에 위치한 세븐마일브리지(Seven Mile Bridge)에서 열린 Seven Mile Bridge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다리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회는 1982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으며, ‘세븐마일브리지’는 다리 길이가 7마일에 이른다고 해서 붙여졌다.

/연합뉴스